



남서울 목장 모임

(11월 27일)

Worship 찬양과 경배

찬송: 292 남서울찬양집: 152(세상 흔들리고)

Words 말씀

전도서 1:1-11을 읽어 보시다.

전도서는 인간의 삶을 '헛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도서의 서두(1:2)와 결말(12:8)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허무주의나 회의주의, 염세주의에 대한 예찬이 아닙니다. '해 아래 삶'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돌아가는 모순된 현실[수고(1주), 소외(2주), 무지(3주), 죽음(4주), 옛 본성(5주)]을 보며 탄식합니다.

1. 전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1-3절).

1 인간사의 헛됨을 노래하는 전도자는 누구입니까(1절)?

온갖 영화를 다 누려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다.

표제에서는 히브리 시가서의 전통에 따라 저자와 배경, 장르를 소개한다. 저자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도자'라는 직책이고, 다른 하나는 저자의 신분을 암시하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다. '전도자'(코헬렛)는 보통 대중 연설자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회중을 모아 (카할) 그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지혜자 혹은 설교자'로 그려진다. 전통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저자로 보지만, 표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솔로몬이 암시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솔로몬의 입을 빌려 익명의 전도자가 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열왕기상 4:29-34이나 그의 생애와 유사한 전도서 2:3-11 등은 솔로몬을 저자로 지지한다. 잠언(1:10)과 아가(아 1:1)에서는 솔로몬의 이름이 직접 명시되지만, 전도서에는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코헬렛'을 필명으로 주장하는 학자(R. 스코트)도 있다.

2 전도자는 헛됨의 전제(前提)이자 하나님 없는 인간의 영역을 어떻게 표현합니까(3절)?

‘해 아래’라고 표현한다.

전도자의 초성은 ‘헛됨’이다(2절). 전도서 본론의 시작과 마지막도 ‘헛됨’(1:2; 12:8)이다. 2절은 전도서 전체 주제를 드러내는 구절이다. 전도자는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일)이 헛되다고 말한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 허무’를 선언한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해 아래서’ 그렇다는 것이다. 본서에만 29회 등장하는 ‘해 아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라는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중의적인 기능”을 갖는다. 더 나아가 ‘해 위’와 대비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에서는 공허와 허무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보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삶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 해 아래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있다. ‘해 아래’에서는 절대적인 것도, 영원한 것도 없다는 뜻이다.

<나눔1>

전도자는 해 아래 삶의 한계를 지적하며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헛되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절대시하거나 우상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도 함께 말해봅시다. 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2. 전도자는 세계의 영원성과 인간의 무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4-11절).

1 전도자는 여러 증거를 통해 ‘해 아래 삶의 헛됨’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얻은 증거는 무엇입니까(3, 4절)?

해 아래서 수고한 대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 또 아무리 수고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

전도자는 왜 해 아래 삶이 헛되다고 하는지 여러 증거를 제시한다. 그중에서 첫째는 ‘인간의 삶’에서 얻은 증거다. 전도자는 인간이 행하는 ‘수고의 헛됨’을 예로 든다. 여기에서 ‘수고’는 ‘고난, 힘든 노동, 괴로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1:4-12:7까지 사용된 용례를 볼 때 ‘괴롭히는 그 자체’보다는 ‘인간의 삶 전체를 통해 계속되는 노력 행위’를 가리킨다. 그 ‘수고의 헛됨’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수고한 대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고의 노력이 보답을 받지 못하고 수확의 기쁨이 흘린 땀에 비례하지 않을 때 사람은 낙망의 늪에서 허우적댄다. 또 다른 양상은 아무리 수고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수고의 결과는 사라지고 그 수고(사람)도 잊힌다는 것이다. 이처럼 땅은 영구하지만, 사람은 실 새 없이 오가고 쉼 없이 수고하다가 속절없이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일 뿐이다.

2 전도자가 자연에서 얻은 증거는 무엇입니까(5-7절)?

해와 바람도 수고하고 애쓰지만 달라진 것 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강물은 쉼 없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만물도 단조로운 반복에 지쳐 있고 그런 만물을 보는 우리 눈과 귀도 만족을 모른다.

해 아래 삶의 헛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자연’이다. 땅(4절)에 이어 해, 바람, 강

물의 순환을 그 예로 제시한다. 매일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이리저리 불고 또 불어도 결국 제자리도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반복이다. 자연의 순환은 ‘한 번’ 왔다가 떠나는 인간의 짧은 일생과 비교된다. 동시에, 아무런 의미도 진전도 변화도 없이 무의미한 되풀이처럼 보이는 인간의 일생과 닮아 있다. 5,6절에서 ‘돌아가다’라는 말이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했다면, 7,8절에서는 ‘채우다(족하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모든 강물이 바다를 향해 쉴 새 없이 아무리 빠르게 흘러도 바다는 결코 차지 않는다. 인생의 수고와 욕망도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써도, 얻고 쌓아도 참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 눈은 족함이 없고 귀는 차지 않는다. 해 아래 있는 그 무엇으로도 인생의 텅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3 전도자가 역사에서 얻은 증거는 무엇입니까(9-11절)?

우리는 과거에 한 일을 다시 하고 있을 뿐 새로운 것은 없다. 새롭다고 여기는 것은 과거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해 아래의 덧없음은 역사에서도 나타난다. 역사에도 새로움은 없다. 새롭다고 여기는 것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과거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여기는 것일 뿐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묻고 또 찾아다니지만 새로움은 없고 끝없는 지루함과 피곤함만 있을 뿐이다. 이전 세대의 역사를 되풀이한다. 이전 세대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아무런 유익도 만족도 얻지 못했다. 이후 세대 역시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못하고 이전 세대의 전철을 따라 헛되고 무익한 것을 반복하며 쫓아간다. 인생의 허무는 어느 한 시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역사에 걸친 일이다.

<나눔2>

만물에도, 시간에도 새로움이 없고 끝없는 지루함(피곤함)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지만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습니다. 만족을 모른 채 오감을 즐겁게 하려고 새롭고 자극적인 것만을 찾아다니는 세태에 대해 서로 생각을 말해봅시다.



Pray for ~

- 1)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
- 2) 교회 긴급기도제목과 목장가족들의 중보기도제목들을 나누고 기도
- 3) 찬양과 기도(주기도문/대표기도/합심기도/조용한 묵상)로 마무리 합니다.